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귀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권태경

- | | |
|------------------------|----------------------|
| 1. 서론 | 3.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귀족동맹 |
| 2.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중산층의 관계 | 4. 결론 |

1. 서론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은 개혁의 성격에 따라 루터파(Lutheranism), 개혁파(The Reformed church), 급진파(the radical reformation/Anabaptism), 카톨릭개혁(counter-reformation/Catholic reformation) 등으로 구별한다.¹⁾ 이 가운데 루터파와 개혁파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속 권력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 이를 '관주도의 개혁'(magisterial reformation)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재세례파들은 루터와 개혁파들이 개혁 과정에서 세속 권위와 타협하는 개혁의 순수성

1)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Euan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91); Kames Kirk, *Patterns of Reform* (ED:T&T Clark, 1989).

을 잃어 버린 개혁이라고 비판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²⁾ 필자는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세속 권위의 후원 하에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하여 그 개혁의 성격이 순수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거나, '관주도의 개혁자'들처럼 재세레파의 급진적인 성격을 분파적인 개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주지할 것은 16세기 모든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성경적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세우려는 열망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해함에 있어 종교개혁자들과 당시의 세속 권력자와 후원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통해 나타난 종교개혁의 지지자인 귀족들의 역할을 살피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개혁 성격에서 귀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결정적으로 개혁을 위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제1장에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중산층의 대두와, 중산층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다루고, 제2장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귀족 동맹체인 '귀족동맹'의 문제를 다루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에서 귀족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성격과, 종교개혁의 지지 세력인 중산층과 귀족의 종교적인 성향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기를 바란다.

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중산층의 관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중산층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 엘리스터 맥그래스, *종교개혁사상입문*, 박종숙 역 (서울:성광문화사, 1992), 23.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세속 정부인 국가와 세속 권력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다. 그것은 국가의 무용성과 혹은 세속 권력에 대한 거부를 주장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루터와 칼빈은 종교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의 관리에 대하여 논할 때도 세속 권력인 통치자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은 통치자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낙스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국가와 교회를 기독교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개혁의 축으로 양 날개로 보았다. 필자는 본 고를 통해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중산층과 귀족의 관계와 그들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³⁾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발전에서 중산층(the middle clas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리드(Stanford Reid)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중산층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상인과 장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 부르주와(상인계층)의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와 16세기 동안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한 대외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상인과 군인, 학자들도 이 기간 동안 해외로 많이 진출하였다. 예를 들면 상인들은 러시아로 여행을 하고, 의사들과 전문직업에 종사자들은 덴마크와 엠덴(Emden)과 다른 북유럽으로 진출하였고, 군인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전쟁에 참여하고, 학자들은 파리, 콜로뉴(Cologne), 마르부르그, 비텐베르그,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으로 이주했다.⁴⁾ 스코틀랜드의 중산층이 유럽 대륙으로 여행하고 상업적인 교류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당대 유럽은 루터와 칼빈의 개혁 사상이 만연한 시기였기에, 이미 이들이 교역을 통하여 유럽의 개신교의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Duncan Shaw, *The General Assemblies of the Church of Scotland* (ED: St Andrews Press, 1964), 21-74.

4) Stanford Reid, "The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Church History* 16 (1947), 142.

스코틀랜드의 중산층의 대두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육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대중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닉스의 교육에 대한 계획안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이미 1496년에 모든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육제도의 발전은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의 중산층과 귀족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16세기에 이르러 각 도시마다 학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지방도시의 학교를 졸업한 중산층의 자녀들은 유럽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보다는, 스코틀랜드의 대학에 입학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코틀랜드의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중산층의 대두는 학교 설립과 대중교육 발전에 기여하였고, 스코틀랜드의 지적 발전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중산층이 대중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의미는, 이들이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출신의 지식층이라는 사실이다.⁵⁾

학교 설립과 대중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후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당대 교육 기관인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 출신자들이 카톨릭 교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려는 학교 설립의 이념과는 달리, 닉스를 비롯한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 출신자들이 오히려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⁶⁾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닉스도 하딩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카난도 몬트로우즈에서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였다. 이외에 할힐의 헨리 발나브스(Henry Balnaves of Halhill), 알렉산더 알리스(Alexander Alease),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스코틀랜드의 지성인으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지성인들이며, 이들의 교육에 대한

5) Reid, "The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143.

6) 권태경, "세인트 안드류 대학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독교사학* 3 (1996) 참고.

노력은 이후 종교개혁의 지적 배경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행사한 지도자로서 귀족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던의 어스킨, 칼덜의 산디리안스(Sandilands of Calder), 글렌칼느와 얼롤 백작(the Earls of Glencairne and Errol), 루벤경(the Lords of Ruthven), 킬몰스(Kilmours), 메스븐(Methven)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중산층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외에도 패트릭 머레이(Patrick Murray), 티벌물 영주(Laird of Tibbermuir)와 개신교 지지자인 루벤(the Master of Ruthven)등이 어스킨의 협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귀족과 중산층은 개신교 개혁을 성취하는데 상호 협력의 관계에 있었다. 이중 헨리 발나브스(Henry Balnaves)와 루벤경(the Lord of Ruthven) 등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개혁적인 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개혁적인 성향과 주장은, 이후 낙스의 종교개혁이 발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⁷⁾

스코틀랜드의 지식층인 중산층은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중산층은 당시 스코틀랜드의 교회 모습에 실망하였고, 카톨릭 교회는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은 이해할만하다. 스코틀랜드가 홀랜드와 발틱과 무역을 함으로 무역을 통해 중산층은 그들의 새로운 사상에 자극되었고, 1517년 로마 교회에 대한 루터의 개혁

7) Reid,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148-149; cf. W.C. Dickinson (ed),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v. 1 (London: Nelson, 1949), 45, 99ff, P. H. Brown, *John Knox* 1(London, 1895), 66. 귀족 중 어스킨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던 출신의 영주이다. 개인적으로 던은 카톨릭 성향의 섭정 메리와 친분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결혼 문제로 프랑스의 사절단으로 가기도 했다. 그러나 어스킨은 1550년경 신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낙스의 설교와 주장에 동의하였고, 개신교 설교자를 지지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 David Wright의 2인,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ED: T&T Clark, 1993), 301.

이 시작된 후, 스코틀랜드에도 새로운 종교(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특히 1520년대 북부 독일과 덴마크와의 교류로, 루터주의는 스코틀랜드에 점차로 파급되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의회가 루터주의에 대한 반대를 선포하고, 루터파 망명자들과 순교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스코틀랜드 내에 미친 개신교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개신교 사상에 영향력을 받은 중산층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주도 세력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16세기 전반기에 중산층은 종교개혁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다.⁸⁾

당시 16세기에 새로운 개신교 사상을 전하는 수단은 인쇄물인데, 성경 특히 신약성경이 개신교 전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다. 1527년에 홀랜드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상인들은 영어로 번역된 많은 신약성경(틴데일 역)을 본국으로 수송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종교적인 상황은 자유롭지 못했다. 성경이 유입된 지 14년 동안 영어 성경의 사용은 금지되었고, 많은 사람은 영어 성경본을 소유하고 읽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1543년에 헨리 발나브스(Henry Balnaves)의 작품과 루벤경의 노력으로 성경 소유와 성경을 읽는 것이 법률로 허용되었고, 공개적으로 성경이 스코틀랜드에 유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루터의 책이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 사이에 수입되고 번역되었는데, 특히 독일어로 된 찬송도 이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유포된 중요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인쇄물이 개신교 사상을 소개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게 된다.⁹⁾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발전에서 칼빈주의의 사상의 면모를 보게 된다. 1545년에 스코틀랜드에 나타난 개혁 운동은, 루터주의 운동에서 칼빈주의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루터주의의 보수적인 경향과 재세례파와 같은 급진주의 개혁보다는, 스코틀랜드의 중산층은 칼빈주의와

8) Reid, "The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145-146.

9) Reid, "The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147.

장로주의에 더 호감을 갖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중산층이 개혁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점은, 중산층에게 칼빈의 사상이 더욱 친근한 사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빈의 사상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중산층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데 칼빈의 사상이 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에서 우리는 청교도주의를 엿 볼 수 있는데, 청교도주의는 이미 중세 스코틀랜드에서도 존재했던 사상이며, 따라서 중산층의 사람들이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중산층에게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양극단보다는, 스코틀랜드인들은 칼빈주의가 지향하는 이 양자간의 균형을 원했다. 다른 한편, 중산층은 성격적인 면에서 보면 실용적인 면이 강한데, 중산층은 모든 생활에서 실제적인 것을 원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칼빈이 주장하기에, 중산층 특히 상인과 장인 그리고 무역업 종사자들은 칼빈주의를 선호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개인주의와 장로제가 칼빈주의 사상에 내포되어 있기에, 스코틀랜드의 중산층이 칼빈주의를 선호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의 개혁 사상도 칼빈주의 성향의 개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

3.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귀족동맹

우리는 앞에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중산층의 역할을 논하였고,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귀족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귀족은 구체적으로 상층 귀족이 아닌, 하층 귀족(laird, gentry)인데, 이들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중산층과 같이 대륙의 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당대

10) Reid, "The Middle Class in the Scottish Reformation", 150-153.

통치자인 왕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종교적인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에서 귀족들의 역할과 개혁에 대한 귀족들의 후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시 개신교 성향의 스코틀랜드 귀족과 영주들은 당대 카톨릭 정부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동맹체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적인 언약 공동체인 귀족들의 모임을 두고, 본고 에서는 편의상 귀족동맹(Lords of the Congregation) 이라고 한다. 여기 귀족 동맹(Lords of the Congregation)에서 말하는 'congregation'은 원래 '회중'이라는 의미인데, 필자가 'congregation'을 '동맹', 혹은 '연맹'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개혁 신앙을 하는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언약의 동맹체를 말한다. 따라서 영주와 귀족들이 자신들의 개혁 사상을 결집하는 의미의 언약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기에, 필자는 이를 '회중의 영주들'이라고 하지 않고, '귀족동맹'이라고 표한다. 이 동맹의 목적은 주로 종교적인 것으로서 복음서적의 간행과 복음의 설교, 지교회의 형성, 건전 도덕의 함양, 그리고 성례 시행 등이었다.¹¹⁾ '귀족동맹'의 용어상의 의미는 원래 1557년의 '언약(the First Bond)'의 서명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후 로마 카톨릭과 프랑스와의 동맹을 거부하는 1559-60년 반란의 지도자들을 일컫는다.¹²⁾ 이 동맹을 통해,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에서 귀족과 영주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 동맹은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의 배경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들과 귀족들은 카톨릭의 종교적

11) 에이엠 렌위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홍치모 역(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0), 110.

12) G. Donaldson, *A Dictionary of Scottish History* (ED: John Donald Pub, 1988),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성취하고자 언약 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귀족동맹의 역사적 이해를 위해,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언약의 의미는 다섯 가지인데, 첫째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으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개인적 경건과 도덕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은혜 언약이 개인적인 삶의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적용되었다. 셋째는, 교회와 관련된 언약으로 교회의 책임과 동의를 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1596년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회는 결의를 통해 교회의 책임을 표한 '새 언약'에 동의했다. 넷째는,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언약이다. 이는 본 고의 주제인 1556년, 1557년, 1559년의 개신교 신앙을 위한 귀족들의 언약 동맹과, 1638년 국민언약(Scottish National Covenant)과 1643년 엄숙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왕과 국민과의 언약인데, 제임스 6세와 찰스 1세와 찰스 2세, 그리고 오렌지의 윌리엄 왕의 언약이 여기에 해당된다.¹³⁾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지는 언약 사상을 저항사상과 더불어 낙스의 종교개혁 사상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언약 사상의 배경하에서 발전된 개혁 사상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¹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귀족의 역할이 중요함은 낙스의 저서 <제1 치리서>와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시민관리는 종교를 잘 보존하고 정확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낙스는 1557-58년에 하위관리로서 귀족에게 상위 권력의 횡포와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변호하고 구출 하는 것이 귀족의 직위와 의무임을 피력하고 있다.¹⁵⁾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13) 서요한, *언약사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02-104.

14) 참고 권태경, "존 낙스의 개혁사상과 여성통치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1999).

서 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닉스의 견해는, 그의 초기 작품을 통해 잘 나타난다. 닉스는 개신교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개혁 사상을 피력하였다. 닉스는 이 서신을 통해 귀족들에게 개혁의 책임이 귀족들에게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위해 귀족들에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였다. 닉스는 통치자들이 반란을 일삼고 극단적인 압제를 행하면 저항 할 것을 피력하면서 백성의 저항을 정당화하고 있다.¹⁶⁾

1557년 초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닉스가 제네바로부터 조국으로 귀국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닉스가 10월 24일에 중도인 디에페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다시 닉스가 귀국하지 말라는 편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기즈의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을 설득시켜, 그녀의 딸을 당시 프랑스 황태자인 프란시스에게 출가시키기로 함으로 국내 사정이 다시 급변하였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닉스의 초청장에 서명하였던 귀족들 가운데 일부도 1558년 4월 24일 거행될 결혼식을 위한 최종 교섭 대표로 파견되는 것을 허락한 형편이었다. 닉스는 이러한 귀족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우유부단한 태도를 용인할 수 없었다.¹⁷⁾

한편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부 귀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자, 1557년 12월에 하나의 언약(band/covenant)를 서약하였다. 이 언약의 약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개신교) 목사를 옹호하고,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카톨릭을 거부하는 서약이었다. 이 서약자에는 아르길(the fourth Earl of Argyll)과 그의 아들 로른경(Lord Lorne/ Archibald Campbell), 글렌카이른의 귀족(Earls of Glencairn), 모오톤(Morton/James Douglas), 던의 어스

15) Michael Lynch, "Calvinism in Scotland" in ed Menna Prestwich,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 (Oxford: Clarendon Press, 1985), 241.

16) 바네트 스미스, 도로시 마틴, 존 닉스와 종교개혁 (서울:보이스사, 1988), 36-39.

17) 리이드, 존닉스의 생애와 사상, 서영일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206. cf. D. H. Fleming, *Mary Queen of Scots* (London, 1898), 22ff.

킨(Erskine of Dun)등이 있었다. 이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혁 예배가 스코틀랜드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는데,¹⁸⁾ 이 언약의 서약자들은 오직 참된 복음의 목회자들에게만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능력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전체 회중을 보호하며, 그 안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존하고 더러움과 신성모독에 가득찬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사단의 회교회를 포기하며, 전심전력을 다해 진정한 개혁을 실행하기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였다. 이 당시 귀족들의 1557년 언약이 이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기여한 것은, (개혁적인 성향의) 공동기도서의 예식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점과, 카톨릭 신부들이 이러한 예배를 인도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각 교구에서 평교인이 예배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다.¹⁹⁾

한편, 닉스는 귀족들의 언약이 체결된 1557년 12월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진리의 교사들〉(To the Professors of the Truth in Scotland)에 게 라는 편지를 통해, 교회 개혁의 책임감을 귀족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닉스는 우선 오직 하나님에 의지하여 개혁 운동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18) David Wright외2인,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205. cf. John Knox, *History* 1, 130-131.

19) 리이드, *존 닉스의 생애와 사상*, 203-207; cf David Laing (ed.) *The Works of John Knox*, v. 4 (ED: Bannatyne Club, 1846-64), 257 ff; Knox, *History* 1, 136 ff.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의 모임인 귀족동맹은 회중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여왕의 종교정책에 반감을 가졌다. 섭정은 초기에 자신의 정치에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귀족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귀족들도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것도 보류하면서 섭정의 정치에 협력했다. 그러나 섭정이 표리부동한 태도로 정치를 일삼고, 귀족들을 소외하여 이들은 섭정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회중대표들과 섭정의 관계는 악화되고, 해밀턴 대주교의 요구인, 주교없이 합부로 설교하거나 성례를 거행하지 못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는 나라의 모든 백성은 카톨릭 교회의 의식에 따라 부활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감을 가진 일부 귀족들이 섭정에게 개신교 신앙을 보호하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키자, “왕이 이미 지키고 싶지 않는 약속을 왕에 강요할 권리가 신하에게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종교적인 문제를 두고 섭정과 귀족들간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스미스 마틴, *존 닉스와 종교개혁*, 43-45).

일깨우면서, 만약 정부에서 교회의 개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개적 저항을 표해야 하며, 그 후에는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파하고 성례식을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낙스는 그 누구를 대적해서라도 박해 받은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해밀턴(James Hamilton), 샤텔헤랄트 등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자들과 핍박자들을 경고하였다.²⁰⁾

1557년 12월 3일에 체결한 협약(common band)에 의하면, 어떤 지도적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의를 다하여 지속적으로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들을 유지하고 촉진하며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힘과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또한 충실한 목사들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례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베풀도록 가능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1559년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귀족동맹은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세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맹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회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1560년 4월 27일 작성한 언약(the contract and band)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종교의 개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²¹⁾

다른 한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귀족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개혁 당시 스코틀랜드는 친 카톨릭 정부였는데, 1542년 제임스 5세가 죽은 후 스코틀랜드의 메리

20) 리이드, *존nox의 생애와 사상*, 181-182; John Knox, *Works*, 4, 276ff. 종교개혁기의 해밀턴 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Elaine Finnie, “The House of Hamilton: Patronage, Politics and the Church in the Reformation Period”, *Innes Review* 36 (1985).

21) 홍치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 혁명* (서울:총신대출판부, 1991), 241-242.

(Mary Queen of Scot)가 즉위하였다. 그러나 어린 메리가 즉위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권력은 메리 여왕의 어머니인 섭정 메리(Mary of Guise)가 통치를 하였다. 섭정 메리는 프랑스 가문으로 섭정은 스코틀랜드를 카톨릭화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당대 스코틀랜드의 정부는 개신교를 탄압하는 친 카톨릭 통치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와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섭정 메리는 형식적으로는 개신교 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프랑스왕(Francis II)과 정략 결혼을 한 이후에는, 개신교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개신교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 그들을 소환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감을 가진 제임스 찰머스(James Chalmers)는 서부 지역의 다른 귀족들과 함께, 섭정 여왕과 (카톨릭)성직자들에게 더 이상 반 프로테스탄트적 행위를 계속하면 그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에딘버러에서 가장 극적인 개신교 시위가 세인트 가일즈 축제일에 벌어졌다. 이에 대해 낙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섭정이 참여한 (축제) 퍼레이드에 난입하여 (카톨릭의 성상인) 세인트 가일즈 조상의 머리를 땅 위에 팽개쳐 부수어 버렸다…….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핑키 크루치(Pinkie Cleuch)에서 보다 더 빨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서 이들이 이처럼 민첩한 행동을 보인 예도 드물 것 이다.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고 성직자들의 중백의(surplice)가 찢기워지고 이들의 둥근 모자들이 짓밟혔다. 프란시스칸 수도사들이 숨을 죽이고 도미니칸 수도사들도 비명을 질렀다. 미처 기절하지 않는 신부들은 쥐구멍을 찾기 바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구경한 이들은 운이 좋은 이들이다.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가 날뛴 이래 이처럼 큰 소동은 없었다.”²²⁾

개신교의 카톨릭에 대한 시위와 불만이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정부에 위협적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섭정 메리의 친카톨릭적인 통치

22) 리이드,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207-208. cf. Knox, *History*, 1, 126-128.

는 변함이 없었고, 1558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의회를 통해 왕가의 결혼을 비준하고, 스코틀랜드의 국내외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개신교도들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의 성명서는 예배 및 교육의 자유를 강조하며, 다른 한편 종교적 탄압의 중지와 이단 재판의 중단, 그리고 1540년대 초기에 반 개신교 법안 집행으로부터 보호와 탄압 공직자 추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메리는, 청원에 항의한 사항들은 내가 깊이 명심하겠으며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꼭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메리의 수용적 태도는 이들의 반감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태도였으며, 개신교에 대한 메리의 태도는 여전히 개신교 설교자들을 체포하고 탄압하였다. 이러한 메리의 강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세력은 점차 더 강해졌고, 이에 대처하고자 메리는 1559년 5월 10일 스텔링으로 개신교 설교자를 소환하였다. 메리는 자신의 출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도들을 반란자로 규정하였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없이 극도의 긴장과 갈등으로 나타났다.²³⁾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코틀랜드의 메리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요하지 않았다. 한편 1558년 11월 개신교도들은 섭정 기즈 메리에게 자국어로 기도문을 읽도록 요청하였고, 경건하고 학식있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며 자

23) 리이드, *존 녹스의 생애와 사상*, 209-212. 역사가 브라운은 당시 1559년경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카톨릭 교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국민 대다수에게 (카톨릭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다. 로레인의 메리(섭정?)가 취한 정책은 스코틀랜드를 (카톨릭 성향의) 프랑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속셈 이상의 아무것도 아님이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국민들은 외국군의 거만과 탐욕에 격분하여 절기하였다……1542년 제임스 5세의 사망후 카톨릭 성직자들은 (개신교 성향의) 영국과 이단을 반대하게 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는 국민의 정당이 되었고, 영국은 외국의 폭정을 막아주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녹스는 1559년 5월 2일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였다. 렌위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99. cf. Brown, *John Knox*, 1, 346.

국어로 세례와 성만찬을 거행하며, 마지막으로 성직자의 개혁을 요청하였다. 메리 기즈가 카톨릭의 계서제를 비판하는 서신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자, 1558년 12월 회중(congregation)들은 종교의 남용을 개혁하자는 내용의 항의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559년 5월 개신교를 옹호하는 언약(band)이 퍼스에서 체결되었다. 이 언약서에는 서쪽 지역과 파이프, 퍼스, 던디, 양구스, 먼즈, 몬트로즈의 신도들이 중심이 되었고, 제임스 스튜어트경 아가일(Argyll)과 글렌카이른(Glencairn)과 보이드(Boyd), 오칠트리(Ochiltree)와 라우돈(Loudoun)의 캠벨(Campbell)이 서약을 하였다. 이외에 1559년 8월 스텔링과 1560년 4월 리스에서 개신교를 옹호하는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샤텔헤랄트 공작, 아란 백작의 아들 제임스 해밀톤, 아가일과 헨틀리, 글렌카이른, 로데스, 몰튼, 멘타이스의 백작들, 제임스 스튜어트경, 귀족 루스벤, 보이드, 오길비(Ogilvie), 오칠트리, 헤리스(Herries), 소머빌(Somerville) 경, 바이얼의 린지(Lindsay of the Byres), 갈로웨이(Galloway) 주교를 비롯한 많은 영주들이 포함되었다.²⁴⁾

24) David Wright 외 2인,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205. 16세기 스코틀랜드의 귀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Lord James Stewart (1531-1570)였다. 그는 모레이의 백작이었고 제임스 5세 왕의 아들이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세인트 안드류 수도원의 원장이었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측근이었다. (Donaldson, *A Dictionary of Scottish History*, 155). 모레이(Lord James Stewart)는 프랑스 파리에서 라무스(Ramus) 밑에서 공부했고 칼빈과 교류했다. 모레이는 프랑스의 위그노 귀족들과도 교분을 가졌으며, 카톨릭 개혁자인 더글라스와 원랍 그리고 닉스와 크리스토퍼 굤맨등과도 친분을 가졌다. 모레이는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에서 더글라스와 조지 부카난을 도우며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로 인해 1560년대 세인트 안드류 대학교의 세인트 레오나드 대학의 학생수는 급증하였다. 결국 모레이 백작의 수도원은 이후 스코틀랜드의 (개혁적인) 새 교회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그는 1564년 스코틀랜드의 공동기도문(Book of Common Order)을 인쇄하도록 주선했다. 모레이는 우리에게 불가사해한 인물로서, 그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르네상스 학자와 인문주의자로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마녀 사냥자로 이해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후원자로 상상파괴자로 알려졌다. 더욱 모레이는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칼빈주의 성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전술한 귀족들의 신앙을 자유를 추구하는 언약의 결성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닉스는 귀족들에게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⁵⁾ 이처럼 닉스는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귀족들이 정치에 관여하여 정부의 개신교에 대한 탄압과 외세의 간섭을 막아야 하는 일의 책임을 귀족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섭정 여왕과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정부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였다. 위기를 느낀 개신교 대표의 귀족들은 이제 섭정의 강경한 정치에 대응할 준비를 하였다. 귀족들은 1559년 10월 15일 스텔링에 모여, 프랑스축이 리이스를 자기들의 요새로서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딘버러에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 메리에게 외세 개입과 개신교에 대한 탄압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메리측에서는 전연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음이 확실해지자 귀족들은 닉스를 비롯한 설교가들과 함께 톨부스(Tollbooth)에 회집하여 구체적인 대응 행동을 논의하였다. 의논의 초점은 과연 그녀의 섭정직을 박탈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당시 세인트 가일스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월록은 통치자들은 신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국민들은 불필요한 박해나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경우 통치자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메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분명한 이상, 이 나라에서 출생한 귀족들은 국가의 대표들로서 그녀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귀족들은 이에 따라 프란시스와 메리의 이름으로 태후를 제거하고, 샤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레이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하던 귀족들이 자신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왕에게 충성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개신교와 카톨릭의 많은 귀족들이 1567년경 메리 여왕의 편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귀족들의 신교와 구교에 대한 이해 관계로 인해 양자간의 갈등과 혼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Lynch, "Calvinism in Scotland", 243-245).

25) Knox, *History*, 1, 167-171.

해랄트와 3인의 백작, 던디(Dundee)의 시장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사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²⁶⁾

귀족들이 당시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정권에 대처하여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스는 세인트 가일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던 귀족들을 위해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낙스의 설교 중 주목할 만 것은 에딘버러에서 행한 시편 80편의 강해인데, 이는 11월 8일 스텔링에서 행한 설교였다. 그는 시편80:4-8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특히 해밀턴 가가 합세한 이래 회중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하는 한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개탄하였다. 또한 이전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공작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였으나,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슬픔과 고통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혼란과 공포가 기쁨과 명예와 용기로서 변화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벤자민 지파를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왜냐하면 시절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낙스의 설교의 효과는 당시 카톨릭의 세력에게 위협적이었다.²⁷⁾

낙스가 그의 설교를 통해 개신교도들의 사기를 양양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회중 지도자들과 귀족들의 태도는 확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스는 11월 18일 두 통의 중요한 편지를 작성했다. 첫 번째 서신은 영국의 세실에게 보낸 것으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이제까지 섭정 메리 기이즈의 군대들을 상대해 싸우느라고

26) 리이드,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228. cf. Knox, *History*, 1, 249ff.

27) 리이드,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229-230. cf. Knox, *History*, 1, 265ff.

지칠대로 지쳐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영국 정복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에 두번째 록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낙스는 회중들이 인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시련을 주셨으나, 궁극적으로는 축복하심으로써 분명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런던에 있는 신자들에게 호소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운동 등을 위해 헌금해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실은 영국의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낙스에게 기도하라는 록크 부인의 답신은 낙스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²⁸⁾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칼빈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낙스가 칼빈으로 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대개 11월말쯤으로 짐작된다. 이미 8월 중에 낙스는 두 가지 실제적 문제에 대해 칼빈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었다. 한 가지는 우상숭배자나 파문을 당한 자들이 회개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경우, 아직 어린이들의 사생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수도사나 사제들에게도 매년 봉록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낙스는 이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칼빈은 이들을 단순히 흑,백의 답이 분명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칼빈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은 수 천 세대를 두고 영원한 것임을 지적하셨다. 만약 어린 아이들의 조상들이 믿는 성도들이었을 경우에는 적당하고 양심적인 후원인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훈련, 양육시키겠다는 약속을 할 때에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부터의 성직자들의 경우, 물론 이들에게 교회에서 봉록을 요구할 법적, 도덕적 근거는 없으나 이들 대부분이 진리에 대한 무지

28) 리이드,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231.

가운데서 서약했으며, 또한 특별히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들이 없는 만큼 보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생활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이처럼 칼빈의 답변은 낙스의 생각과는 달랐다.²⁹⁾

낙스의 종교개혁을 위한 노력과 영국의 도움으로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다. 즉 윈터 제독(Admiral Winter)의 지휘 아래 8척의 영국 소함대가 도착한 것과, 레팅톤의 메이트랜드가 주도한 협상의 결과 엘리자베스에 의하여 1560년 1월 초에 보내진 윈터 제독은 참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도착한 셈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코틀랜드의 회중 대표와 영국간의 협상이 진척되었는데, 즉 1560년 2월 27일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간에 조약이 성립되었다. 양측은 공동의 적에 대해 서로를 돕기로 동의하였으며, 특히 영국측은 스코틀랜드 국도 자체를 정복하는 일 없이 이곳에서 프랑스군을 축출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협상으로 6월 16일부터 프랑스를 대표하는 샤를르 드 로쉬푸코(Charles de Rochefoucault), 쉬르 드 랜단(Sieur de Randan)과 바렌스의 주교 장 드 몽룩등과 영국을 대표하는 캔터베리와 요오크의 부감독 니콜라스 윗톤 박사, 윌리엄 세실 경 사이에 회담이 개시되었다. 이 회담에 대하여 낙스가 지적하듯이, 양측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에 도달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이와 함께 이미 4월 27일 리이스에서 “맹약”을 체결한 회중 지도자들 가운데 약 50명은 협상자들에게 요구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이 조항들은 후에 에딘버러 조약에 첨가되었다. 양측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모든 외국군들은 스코틀랜드 영토에서 철수하고, 왕과 여왕이 본토 출신의 귀족들, 신하들을 통해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결과로 스코틀랜드와 영국 프랑스 3국의

29) 리이드,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232-233.

긴장은 완화되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닉스의 의도대로 스코틀랜드에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고, 새로운 개혁의 토대가 형성되었다.³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발전에 스코틀랜드의 귀족동맹의 역할이 컸으며, 대외적으로 영국의 후원과 1560년 6월 섭정 여왕이 사망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전환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1560년 7월에 에딘버러 조약으로 스코틀랜드로부터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의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 샤텔헤랄트 공작을 중심으로 한 귀족동맹은 1561년 메리 여왕이 프랑스로부터 귀국 시까지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시기인 1560년 7월 의회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귀족동맹의 도움으로 제출하여 개혁의회의 승인을 받고, 1560년 작성한 〈제1 리처서〉를 1561년 1월 개혁 성향의 귀족들이 서명하여 동의를 구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³¹⁾

4. 결 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16세기 종교개혁기의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제임스 5세 사후,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섭정 메리의 친 카톨릭적인 종교정책과, 프랑스의 외교적인 간섭은 스코틀랜드 백성들의 불만을 갖게 하였으며, 메리 정부의 카톨릭 교리와 예배 강요는 개신교도들의 반감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중산층의 대두와 일부 개신교 성향의 귀족들의 개혁에 대한 후원은 종교개혁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30) 리이드, *존닉스의 생애와 사상*, 234-236.

31) David Wright의2인,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205.

개혁 과정에서 중산층과 귀족들이 개혁에 기여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이 유럽과의 상업적인 교역과 여행을 통해 이미 루터와 칼빈의 개신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카톨릭에 반감을 갖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귀족들의 역할은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나타난, 언약 사상을 통해 알 수 있다. 닉스의 개혁의 사상도 역사적으로 보면 스코틀랜드의 언약사상에서 발전한 것이다. 즉 닉스의 개혁은 스코틀랜드를 언약 국가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보는 언약 사상적 관점에서, 닉스는 종교개혁과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본 고에서 고찰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귀족들의 언약 동맹체인 '귀족동맹'도 종교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에서 나타난 것이며, 이들의 역할은 카톨릭의 세력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바는, 스코틀랜드의 '귀족동맹'이 스코틀랜드의 하층 귀족(laird, gentry) 중심의 결성체로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후원자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당대 세속 통치자인 왕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완전한 개혁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 면에서 필자는 닉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귀족들의 종교적인 입장은 왕과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소 애매한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우리는 닉스의 종교개혁에 중산층이 왜 이 시기에 닉스의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필자의 입장은 닉스 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는 스코틀랜드 중산층의 지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칼빈주의자인 닉스의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의 중산층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보고,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성향의 중산층이 닉스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본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종교 개혁과 다른 면이 있다. 즉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종교적인 탄압으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성취하였고, 프랑스의 외세 간섭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적인 저항과, 개신교 성향의 중산층과 귀족동맹의 후원과 지지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중산층과 더불어 개혁의 지지 세력으로 언약 공동체인 스코틀랜드의 '귀족동맹'의 역할은, 다른 유럽 종교개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종교개혁의 지지 세력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 사실이다.